

고대 국가의 제천의식(祭天儀式)과 민회(民會) — 한국정치사상사의 ‘고층’(古層)과 ‘집요저음’(執拗低音)을 찾아서 —

김 석 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 글에서는 고조선과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사이에 존재했던, 이른바 ‘연맹왕국’ 시대의 ‘제천의식’과 ‘민회(民會)’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자 한다. 그 시대의 제천의식과 민회는, 한국적인 정치적 사유의 아주 오래된 ‘고층’(古層)을 형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외래사상을 받아들이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천의식’에서, 그 제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하늘(天)은 애니미즘(animism)의 최고봉에 다름아니었다.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지배와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하늘의 아들」 혹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리 낯설지 않다. 또한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만큼, 하늘이 갖는 위상은 실로 컸다. 각 연맹왕국에 고유한 제천의식이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삼한의 기풍제와 추수감사제가 거기에 해당한다.

또한 제천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은 ‘국중대회’(國中大會)로 표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원초적인 모임(집합)’, 그것은 원초적인 형태의 ‘민회’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상화되기는 어려웠다. 연맹체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논의, 결정하는 합의제 형식, 말하자면 간접적인 방식의 민회가 보다 일반적이었다.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점차 그것은 귀족회의로 변해가게 되지만, 고구려의 귀족회의와 대대로 선출, 백제의 재상 선출과 정사암, 그리고 신라의 남당, 화백제도, 사령지 등을 통해서 그같은 합의제의 전통을 엿볼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의 형성, 정립과 더불어, 제천의식과 민회의 위상 역시 변하게 되었다. 그들은 약해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으며, 정치적 사유의 아주 오래된 ‘고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하늘(天)과 민(民)에 대한 인식은, 한국정치사상사에서 ‘집요저음’(basso ostinato) 내지 ‘집요한 저류’로 작용하게 된다. 예컨대 그같은 전통은 ‘천’과 ‘민’을 중시하는 유교 수용

을 한층 손쉬운 것으로 만들어주었다. 간접적 형식의 민회는 ‘합의제’ 전통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국중대회 형식의 민회는 왕조 교체기나 정치적 격동기에 등장해 정국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곤 했다.

I. 머리말: 고조선과 ‘삼국’ 사이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고조선은 한반도에 등장한 최초의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그 국가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른바 청동기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성읍국가’이며, “한국에 있어서 최초로 등장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이기백 외 1982, 41). 하지만 가장 오래된 문헌이자 정사(正史)로 여겨지는 『三國史記』(1145)에는 단군 신화와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지 않다. 『三國遺事』(1289)를 통해서 단군신화, 그러니까 고조선의 건국과 그에 얽힌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상고사 내지 고대사의 경우 실상을 전해주는 사료가 적은 만큼, 어느 정도까지는 중국 측의 기록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지와 왜곡이라는 함정이 없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만큼 중국 사서의 기록을 방편적으로 활용하면서, 조심스레 역사상(歷史像)을 재구성해가야 할 것이다.

『史記』의 「朝鮮列傳」(권 115)은 고조선의 발전과 위만(衛滿)에 의한 정권교체 그리고 한(漢)나라 무제(武帝)에 의한 멸망과 한사군(漢四郡)의 설치에 대해 전해 주고 있다.¹⁾ 그 흐름을 정리해보면, 대륙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일단의 유이민(流移民)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의 영도자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準王)을 내쫓고 나라를 빼앗았다는 것(B.C. 194-180),²⁾ 그 때 이미 고조선 이외의 몇몇 성읍국가가 등장해 있었다.³⁾ 그리고 위만 조선이 그들과 중국 사이의 교역을 방해하

-
- 1) 거의 같은 내용이 『漢書』 권 95, 「朝鮮列傳」에도 실려 있다. 그 외에 『三國志』 卷 30 「魏書」 東夷傳 裴松의 주(注)에 인용된 「魏略」에도 B.C. 3세기 경의 고조선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 2) 『三國遺事』 「紀異」 篇의 衛滿朝鮮條 역시 그같은 사정을 전해주고 있다.
 - 3) “청동기의 사용과 더불어 형성된 성읍국가를 기본으로 하고 각지에 정치적 사회가 탄생하였다. 북쪽 송화강 유역의 夫餘, 압록강 중류 지역의 濊貊, 요하와 대동강 유역의 古朝鮮, 동해안에 있는 함흥평야의 臨屯, 황해도 지방의 眞番, 그리고 한강 이남의 辰

자 마침내 한나라는 위만조선을 공격,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것(B.C. 108)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한사군의 설치에 대해서, 토착적인 정치세력들의 반발과 저항은 거셌던 듯 하다. 20여년 만에 진번, 임둔 2군을 폐지하고 낙랑, 현도군에 맡겼다는 것(B.C. 82), 현도군이 만주 흥경(興京)으로 옮겼다는 사실(B.C. 75)이 그같은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와 병행해서, 한반도 곳곳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공동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의 성격으로 보자면, 종래의 성읍국가들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연맹체, ‘연맹왕국’이라 할 수 있겠다.⁴⁾ 그런 예로는 『三國志』 「東夷傳」(卷 30)에 나오는 ‘부여, 고구려, 동옥저(東沃沮), 예(濊), 삼한(三韓)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 등을 들 수 있겠다.⁵⁾ 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⁶⁾

‘정치사’ 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그같은 연맹왕국들은 서로 경쟁하고 통합해가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3국’의 정립(鼎立), 다른 말로 하자면 ‘중앙집권적 귀족국가’(혹은 ‘고대국가’)⁷⁾ 체제를 갖추게 된다. 그런데

國 등이 그러한 것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B.C. 4세기 경에는 이미 중국에까지 그 존재가 알려질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청동기의 유물을 제일 많이 남기고 있는 요하와 대동강 유역에 자리잡고 있던 고조선이 가장 선진적인 것이었다.” (이기백 1991, 33).

- 4) ‘부족연맹체’, ‘영역국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기백·이기동 1982, 57 참조.
- 5) 『三國志』 卷 30 「東夷傳」에는 “부여, 고구려, 동옥저, 읍루, 예, 마한, 진한, 변한, 왜” 등의 전이 실려 있다. 따라서 3세기 중엽까지의 한국고대사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後漢書』 「東夷傳」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지만, 역시 『三國志』 「東夷傳」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6) 『三國遺事』 「紀異」편에는 고조선, 위만조선에 이어 “마한(馬韓), 이부(二府), 칠십팔국(七十八國), 낙랑국(樂浪國), 북대방(北帶方), 남대방(南帶方), 말갈(靺鞨)과 발해(渤海), 이서국(伊西國), 오가야(五伽倻), 북부여(北夫餘), 동부여(東夫餘), 고구려, 변한(卞韓) 백제(百濟), 진한(辰韓)”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적은 다음, 신라시조 혁거세왕부터 왕별로 기록하고 있다. 그같은 이름의 단순하고 간략한 나열 자체가 복잡한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래전의 일이었던 만큼, 아마 그들은 각 지역에 전해지는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 7) 고대사회의 발전과 이른바 ‘고대국가’의 성격과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진덕규 2002, 90-103을 참조. 어떤 관점에 서건 간에, 삼국(고구

그들 연맹왕국들은, 최초의 성읍국가 고조선과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서의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에 끼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런 만큼 그다지 주의하지 않는다. 정치적 과도기에 존재했던 ‘한시적인 국가들’ 임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사라져간 왕국들’ 이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치사상사’ 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설령 희미할지라도 그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치적 사유의 흔적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그들을 통해서, 정치적 사유의 아주 오래된 ‘고층(古層)’⁸⁾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외래사상’ 으로서의 ‘유교, 불교, 도교’ 삼교(三教)가 도입되기 이전의 ‘토착적인’ (혹은 원시적인) 정치적 사유를 재구성해내는데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같은 토착적인 사유는, 그 후 중국에서 전래된 외래사상을 받아들이는 데, 어떤 형태로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울러 덧붙여두고 싶은 것은, 훗날의 고대 국가들 역시 그 기원을 따져보면 역시 ‘연맹왕국’ 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三國志』 「東夷傳」에 ‘고구려’ 가 병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점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다만, 연맹왕국들 사이의 ‘경쟁과 통합’ 과정에서 살아남아 ‘고대국가’ 로 발전해갔던 것 뿐이다. 때문에 선형적으로 ‘삼국’ 으로 한정시켜 보기에 앞서, 정치사적인 성장과 발전 과정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다소 시기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고조선과 연맹왕국들 그리고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단계 — 이른바 ‘고대국가’ 로 도약하기 이전 단계 — 에서 가늠해볼 수 있는 시대에 있었던 ‘제천의식’ 과 ‘민회(民會)’ 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려, 백제, 신라)의 정립(鼎立)이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부족연맹(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적 왕국(고대국가)으로 나아갔다는 견해에 따르기로 한다.

8) 원래 지질학 용어로서 가장 오래된 지층을 가리킨다. 정치의식의 성층 중에서 가장 오래된, 따라서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을 말한다. ‘古層’ 개념에 대해서는 丸山眞男/ 김석근 외 1998의 “역사의식의 고층” 및 丸山眞男 1996a 등을 참조할 것,

II. 건국신화와 지배의 정당화

“창건 신화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들의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창건 신화는 그들의 역사를 낳은 자궁과도 같다.”(J.F. 비얼레인 저·배경화 역 1999, 10) 창건 신화, 내지 건국 신화는 어떤 한 국가, 내지 한 민족의 기층적 사고 및 세계관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정치적 사고(思考)의 ‘원형’(原型, archtype)에 가까이 갈 수 있다.⁹⁾

아득한 태초부터 신화가, 더구나 ‘건국신화’가 존재했을 리가 없다. 건국신화는 일정한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일정한 규모의 정치적 공동체 형성, 다시 말해 ‘건국’(국가 건설)이라는 ‘정치’ 행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창세·기원 신화에 비해 비교적 후대에 등장한다. 마야흐로 신화가 역사적 사건과 결합하는 단계에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씨족 내지 부족 단위의 집단이 모여서 더 큰 규모의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때문에 건국신화의 등장은 대규모의 정복과 전쟁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적인 토대, 구체적으로 청동기 시대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은 어떤 형태로건 지배-피지배 관계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같은 관계를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이데올로기 내지 이념적인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것은 역사발전에서 하나의 ‘사건’ 내지 ‘전환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단군신화 역시 한번쯤 그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청동기시대로 이행해가는 변혁기, 생산력의 발전과 사유재산의 등장, 정복과 유이민을 통해 씨족과 부족 단위를 넘어서 성읍국가가 등장하는 역사적 상황 등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으며,¹⁰⁾ 그 신화 속에는 아득히 먼 시점에서 고조선 성립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기원을 달리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거의 다 담겨 있다.

9) 그같은 관점에서 일본의 건국신화를 검토하고 있는 김석근 2003, 120-121 참조.

10) “요컨대 단군신화는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고조선의 건국과 함께 성립한 것이며, 따라서 고조선의 건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신화”인 것이다(이기백 외 1982, 44). 그리고 단군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4를 참조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하늘(天)’에 다름아니다. 『三國遺事』는 그에 대해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 “『고기(古記)』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옛날에 환인(桓因)의 서자(庶子)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하였다. 아버지[환인]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白)을 내려다 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이에 아들에게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그곳에]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무리 3천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白山) 정상[태백은 곧 지금의 묘향산이다] 신단수(神檀樹)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神市)라 이르고 그 분을 환웅천왕(桓雄天王)으로 불렀다. [그는]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을 맡아서 관장하고 인간 세상에 관한 3백 60여 가지 일을 관장하면서 세상에 머물러 다스리며 교화하였다”¹¹⁾

하늘(天), 그것은 우주의 만물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애니미즘(Animism)의 일환, 아니 그 최고봉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늘은 「태양」보다 훨씬 더 진보한 사유체계에서 볼 수 있다. 자신의 지배와 통치를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 「하늘의 아들」 혹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리 낯설지 않다.¹²⁾ 그 모티브는 그 후의 건국설화에서 거의 예외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는 주몽 역시 자신을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라 했다. 그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는 신기하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에 의하면, “나는 하백(河伯)의 딸이고, 이름은 유화(柳花)이다. 여러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 놀았는데, 때마침 한 남자가 자칭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하면서 나를 웅심산(熊心山)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사육을 채우고, 그 길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의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남자와 관계한 것을 꾸짖고,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녀를 데려온 부여왕 “금와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녀를 방에 가두었는데, 그녀에게 햇빛이 비쳤고, 그녀가 몸을 피하면 햇빛이 또한 그녀를 따라가면서 비쳤다. 그로 인해 태기가 있어 다섯 되들이 만한 큰 알을 낳았다. 왕이 그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으며, 다시 길 가운데 버렸으나, 소와 말이 피하고 밟지 않았다. 나중에는 들에 버

11) 『三國遺事』 「紀異」 篇 古朝鮮條.

12) 이에 대해서는 김석근 2002a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렸으나 새가 날개로 그것을 덮어 주었다. 왕이 그것을 쪼개려 하였으나 깨뜨릴 수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가 그것을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니,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왔다. 그의 골격과 외모가 뛰어나다. 그의 나이 7세에 보통 사람과 크게 달라서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 속담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로써 이름을 지었다 한다.”¹³⁾

한참 훗날의 일이지만 ‘고대국가’로 웅비하게 되는 고구려의 경우, 실은 연맹왕국 부여의 영향권 하에 성장해 벗어났다는 것을 넉지시 말해주고 있다. 실은 부여왕 금와 역시 예사롭지 않은 출생담을 가지고 있다.¹⁴⁾ 어쨌든 주몽은, 금와의 일곱아들, 특히 큰 아들 대소(帶素)의 견제와 핍박을 피해 도망가게 되고, 군사들이 그 뒤를 쫓았다. 강가에 다다른 주몽은 이렇게 외쳤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을 하는 길인데, 뒤쫓는 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해야 하는가?”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물위로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주몽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천제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하겠다.¹⁵⁾

건국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거나 하늘의 자손이라는 모티브는, 구체적인 양상은 조금 다를지라도, 신라와 가야의 건국 신화에서도 —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백제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동명성왕의 아들로서 한 다리 건넌을 뿐이다.¹⁶⁾ 건국 시조에 얽힌 신화적인 이야기는 그 정치적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겠지만, 그와 동시에 지배 질서

13) 『三國史記』「高句麗本紀」東明聖王條.

14) “부여왕 해부루(解夫婁)가 늙을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 그는 산천에 제사를 드려 아들 낳기를 기원하였다. 하루는 그가 탄 말이 곤연(鯤淵)에 이르렀는데, 말이 그곳의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왕이 괴이하게 여기고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러보니, 금빛 개구리[와(蛙)는 와(蝸)라고도 한다.] 모양의 어린 아이가 있었다. 왕이 기뻐하며 “이 아이가 바로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구나!”라고 말하고, 그를 데려와 기르며 금와(金蛙)라고 이름지었다.” 『三國史記』「高句麗本紀」東明聖王條.

15) 이같은 신화적인 이야기는 가장 오래된 금석문 「광개토대왕 비문」(A.D. 414년)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비문의 그것이 『三國史記』의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이규보(李奎報)의 「東明王篇」(『東國李相國集』卷 3)은 그 신화를 아름다운 ‘五言古律詩’로 노래한 것이다.

16) 『三國史記』「百濟本紀」溫祖王條.

와 관계를 나름대로 정당화시켜주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¹⁷⁾

III. 제천의식(祭天儀式)

우주의 만물이 모두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원시신앙, 그것이 곧 애니미즘(Animism)이다. 해와 달, 산이나 강, 하천 그리고 나무나 바위 등등 모든 것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 수목(樹木)과 거석(巨石) 숭배, 그리고 산천(山川) 신앙 등은 그같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자신의 이해와 능력을 넘어서는 미지의 자연에 대한 원초적인 외경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삼위태백, 태백산, 신단수, 백악산 아사달 등은 아마도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으리라. 고구려 시조 주몽의 외조부가 강의 신 하백(河伯)이라는 것 역시 예사롭지 않다. 게다가 산과 강, 그리고 바다는 그들 삶의 현실적인 원천이기도 했다.

그러면 삼라만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니, 그들은 무엇이라 생각했을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도처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서열이 매겨지기 마련이다. 신들의 사회에도 계급과 서열이 있다. 가까이 있어 정체가 간과되어버린 것은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 언제나 머리 위에서 이끌거리는 태양이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태양 신앙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런데 「태양」과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차원의 그것이 바로 「하늘」(天)이다. 태양이 가시적인 것이라면, 하늘은 상당히 추상화된 것이다. 형이상학적으로 한 걸음 더 진보한 것이라 하겠다.¹⁸⁾

게다가 건국 시조, 다시 말해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수장이 된 영웅들은, 거의 예외없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거나 아니면 하늘(天)의 자손이라는 신화를 가

17) “우리나라 건국신화의 기본 특질을 요약하면 ‘천손강림(天孫降臨)의 개국설화’와 ‘신혼감이(神婚感異)의 국조설화’의 복합이라 할 수 있다. 이 두가지는 불가분의 상호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 근본 모티브는 우세족의 열세족에 대한, 지배자의 피지배자에 대한 자가(自家)의 혈통적 권위의 과장에 있다.” 조지훈 1996, 69-70 및 78-79 참조.

18) 이른바 한자문화권에서 ‘天’과 ‘日’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크게 다르다. 日은 月과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신화에서는 태양신(天照大神,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이 단연 두드러진다.

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하늘(天)’이 가장 위대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하늘의 자손으로 설정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지금이야 그런 신화 자체가 지배의 정당화 논리 내지 일종의 이데올로기라는 식의 해석이 — 나아가서는 ‘해체’가 — 가능해졌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의심할 수 없는 ‘신성한 이야기’에 다름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하늘’에 대한 믿음과 숭배는, 당시의 ‘정치’ 현상의 존재양태와도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 그 자체, 정치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단군신화는 ‘제정일치’ 시대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다.¹⁹⁾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군장’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단군왕검」은 곧 제사장과 정치적 군장이 일치하고(혹은 미분화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거기에 담겨 있는 「정치」의 모습은, 종교와 정치가 아직 분화되기 이전의 그것, 다시 말해 ‘신정정치’(theocracy)의 그것에 가깝다.(김석근 2002a, 32-35)

하지만 연맹왕국 시대의 어느 시점에,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고대국가 초기 단계에 그같은 제정일치 상태는 ‘분리’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²⁰⁾ 세속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제의가 기능적으로 다른 영역을 떠맡게 되었을 것이다. 연맹왕국 사이의 치열한 ‘경쟁(전쟁)’과 ‘통합’ 과정을 통해서, 특히 세속적인 정치권력의 독자적인 행보와 더불어, 그같은 분화는 한층 더 가속화되었을 것이다.²¹⁾ 뒤에서 보겠지만, 삼한(三韓)에서 별읍(別邑)을 주관했던 제사장, 즉 ‘천군’(天君)의 존재는 제정분리 현상을 말해주는 좋은 징표가 된다. 그 별읍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았다. 그곳은 일종의 신성불가침의 지역으로 여겨져 죄인이 도망가서 숨더라도 그를 잡아가지 못했다. ‘소도(蘇塗)’가 그것이다.²²⁾

19) “신시는 제정일치 단계에서 임금으로서의 권능과 무당으로서의 주술을 동시에 발휘하는 신성장소이다. 환웅을 일컬어 환웅천왕이라고 한 데도 이 두 가지 능력이 함께 나타나 있다.”(조동일 1988, 65)

20) 『三國史記』 기록 도처에서 무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은 오로지 종교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이미 왕의 충실한 ‘신하’가 되어 있다.

21) 대외관계, 특히 군사활동이 제사장의 제정일치적인 권위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안겨주었다(진덕규 2002, 56).

22) ‘소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이기백·이기동, 앞의 책, 112-113쪽을 참조. 소도는 서양의 asile, asylum(遁避所)에 대비될 수 있겠다. 또한 고대 그리스 제우스의 거주처인 올림푸스(Olympus)나 오늘날의 바티칸(Vatican) 공국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정일치 시대는 물론이고, 그 후에 제정분리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늘'이 갖는 위엄과 권위는 — 적어도 '종교적인' 권위는 —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도를 관장하던 제사장의 칭호가 '천군'(天君)이었다는 사실 역시 상징적이다. 자신들의 통제를 넘어서는 날씨와 기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특히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태양, 바람, 비 등에 대한 외경심은 한층 더 깊어졌을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을 맡아서 관장하고 인간 세상에 관한 3백 60여 가지 일을 관장하면서 세상에 머물러 다스리며 교화하였다"²³⁾고 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그러니 연맹왕국 나아가서는 고대국가 초기 단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치렀다는 것, 다시 말해 '제천(祭天)' 의례가 있었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三國志』 「東夷傳」은 연맹왕국 시대에 대해 귀중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 그것을 토대로 '제천의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²⁴⁾

1. 부여의 영고(迎鼓)

부여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으며, 현도군에서 천리쯤 떨어져 있는데, 남쪽으로 고구려, 동북으로 읍루(挹婁), 서쪽으로 선비족과 접해 있는데, 북쪽에 약수(弱水)가 있으며, 국토의 면적은 사방 이천리 정도가 되었다. 산과 언덕, 넓은 연못이 많아, 이른바 '동이' 지역에서는 가장 평탄하고 넓은 곳이었다. 호구 수는 팔만호, 사람들은 정착(定住, 土着) 생활을 했다.

이미 '지배-피지배' 관계 내지 '권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듯 하다. 궁실과 창고, 그리고 감옥이 있었다. '군왕'이 있었으며, 여섯가지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삼았는데,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加)·구가(狗加)·견사(犬使)가 있었다. 견사(犬使)는 사신(심부름꾼)이었다. 읍락에는 호민(豪民)이 있고, 백성은 하호(下戶)라 했는데, 모두가 노복(奴僕)이었다. 여러 가(加)들은 따로 사출

23) 『三國遺事』 「紀異」篇 古朝鮮條.

24) 이하의 서술은 『三國志』 卷 30 「東夷傳」을 참고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만 각주에 밝히기로 한다.

도(四出道)를 다스렸는데, 큰 것은 수천 집, 작은 것은 수백 집이었다. 사람들은 흰 색을 숭상해 흰 옷을 즐겨 입었다. 흰 베로 크고 넓은 소매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족신을 신었다.

그런데 형벌이 엄하고 혹독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한 자는 훔친 것의 열 두배를 갚아야 했다. 남녀가 음란한 것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를 하면 모두 사형에 처했다. 부인이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해서 죽인 후에 그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던져두었다. 그리고 썩어 문드러지도록 내버려두었다. 친정에서 그 부인의 시체를 거두려 하면, 소와 말을 바쳐야 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았다(兄死妻嫂).

이 글의 관심사로 볼 때,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은나라 정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나라 안에 크게 모였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것을 ‘영고’라 했다. 그 때는 형벌을 그치고 죄수를 풀어준다.”²⁵⁾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늘에 제사지내고, 연일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했다는 것, 그 때만큼은 적어도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게다가 그 때는 형벌을 적용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도 풀어주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제사’ 이자 동시에 ‘축제’였던 셈이다.

그같은 은정월의 정례적인 축제가 아니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도 있었다. 일단 유사시에 그렇게 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또한 하늘에 제를 올리고, 소를 잡아 그 발굽을 살펴서 그로써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붙으면 길하다고 믿었다. 적이 침입하면 제 가들은 모두 모여서 전쟁에 참전했으며, 하호들은 식량을 가져다가 (군사들의) 음식을 만들어주었다.”²⁶⁾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는 죽음이 따르기 마련이다. 부여에서는, 여름철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넣어 장사지냈으며, 장사는 후하게 치렀다. 관은 쓰지만 곱은 쓰지 않았다. 주목되는 것은, 사람을 죽여 순장을 했는데(殺人徇葬), 많을 때는 백여명이나 되었다.

또한 제천의식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옛 부여의 오랜 풍속에 다름아니다. “옛 부여의 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곡이 익지 않을 때, 그 때마다 왕

25) 원문은 다음과 같다. “以殷正月祭天，國中大會，連日飲食歌舞，名曰迎鼓。於是時斷刑獄，解囚徒。”

26) “有軍事亦祭天，殺牛觀祭以占吉凶，蹄解者爲凶，合者爲吉。有敵諸加自戰，下戶俱擔糧食飲之。”

에게 허물을 돌려서 혹은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 고 하거나 혹은 '왕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고 했다"²⁷⁾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옛 풍속'인 만큼, 후대에도 그러했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같은 풍속이 던져주는 함의는 의미심장하다. 하늘이 관장하는 장마나 가뭄 등에 대해서, 왕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는 것, 그것은 왕이 하늘의 자손 내지 후예로 여겨졌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⁸⁾

그같은 옛 풍속은, 제3장에서 살펴볼 '민회' 와도 연결된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 '왕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고 했을 때, 그 언설(言說)의 주체는, 역시 백성들일 수밖에 없다. 언제나 그러하듯, 현실적으로는 체제 내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었겠지만, 그들의 대항력은 궁극적으로 수많은 백성들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고구려의 동맹(東盟)

고구려의 경우,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이미 친숙하다. 그런데 『三國志』 「東夷傳」(卷 30)에서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고, 남쪽에는 조선과 예맥, 동쪽에는 옥저, 그리고 북쪽에는 부여와 접하고 있다”²⁹⁾고 했듯이, 연맹국가 시대를 구가했던 일원이기도 했다. 더구나 나중에 옥저와 동예를 복속시켰다는 기록도 보인다.³⁰⁾ 건국 초기의 상황, 더우기 '제천의식'을 이해하는데는, 고구려를 '부여의 별종' (夫餘別種)으로 서술하고 있는 「東夷傳」의 기록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³¹⁾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이 있었고 상가(相加) · 대로(對廬) · 패자(沛者) · 고추가(古皐加) · 주부(主簿) · 우태(優台) · 승(丞) · 사자(使者) · 탁의(卓衣) · 선인(先

27) “舊夫餘俗，水旱不調，五穀不熟，輒歸咎於王，或言當易，或言當殺”

28) 훗날의 '천인상관설'에 의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유교 사회에서 천재지변에 대해서 군주가 보여준 행위 — 삼가 근신하거나 상징적으로 종아리에 매를 맞거나 하는 의례적인 것들 — 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29) “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南與朝鮮濊貊，東與沃沮，北與夫餘接”

30) “沃沮·東濊皆屬焉。”

31) 양자를 비교,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훗날의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人) 등의 벼슬이 있었다. 신분에 따라 각각 등급이 있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예컨대 대가(大家)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앉아서 먹는 사람이 만여명이나 되었다. 하호들이 멀리서 쌀과 양식, 고기, 소금을 운반하여 공급해주었다. 감옥은 없었지만,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해서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몰수하여 노비로 삼았다.

본래 고구려에는 다섯 부족, 즉 연노부(涓奴部)·절노부(絶奴部)·순노부(順奴部)·관노부(灌奴部)·계루부(桂婁部)가 있었다. 처음에는 연노부에서 왕이 되었으나, 점점 그 세력이 약해져서 마침내 계루부가 대신하게 되었다. 그 자체, 연맹 왕국 고구려의 성격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처음에 국주(國主)가 되었던 연노부는 다시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 적통을 이은 대인(大人)은 ‘고추가’ (古雛加)로 불리웠다. 그들은 “종묘를 세우고, 신성스러운 별,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대대로 왕실과 혼인한 절노부도, 그 대인은 고추가로 불리웠다.”³²⁾ 또한 “그들의 풍속은 … 거처하는 곳의 좌우에 큰 짐을 짓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또한 신령스러운 별과 토지 신과 곡식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³³⁾고 했다.

게다가 10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때는 나라 안에 크게 모였는데, 동맹(東盟)이라 했다.³⁴⁾ 또한 나라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그것을 수혈(隧穴)이라 불렀다. 10월에는 나라 안에 크게 모여서, 지모신(隄神)을 맞이하여 나라의 동쪽 강 위에 모시고 가 제사를 지냈다. 그 때는 나무로 만든 지모신을 신의 좌석에 모셨다.³⁵⁾

고구려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제사는 물론이고 시조(宗廟), 신성스러운 별, 토지 신과 곡식 신, 지모신에게 제사지내는 신심(信心)이 두터운 사람들이었다. 그랬던 만큼, 장례를 중시했다. 남녀가 결혼하자마자 나중에 죽어서 입고 갈 수의를 미리 조금씩 만들어 두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서, 금과 은의 재물을 모두 장례에 소비할 정도였다. 무덤은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그 주위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

32) “亦得立宗廟，祠靈星社稷。絶奴部世與王婚，加古雛之號”

33) “其俗節食 … 於所居之左右立大屋祭鬼神，又祀靈星社稷”

34) “以十月祭天，國中大會，名曰東盟”

35) “其國東有大穴，名隧穴，十月國中大會，迎隧神還於國東上祭之，置木隧於神坐”

3. 동예의 무천(舞天)

동예는 남쪽은 진한(辰韓), 북쪽은 고구려와 옥저, 동쪽은 바다에 접해 있으며, 호구 수가 2만이나 되었다. 대군장(大君長)은 없으며, 후(侯), 읍군(邑君), 삼로(三老)가 백성들을 다스렸다. 대군장이 없는 걸로 보아 '읍락' 들이 모여 형성한 작은 나라였던 듯 하다. 그러다 강성해진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그 읍락끼리 서로 침범하면 늘 서로 죄로 여겨 살아있는 소나 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책화' (責禍)라 했다. 사람을 죽인자는 죽음으로 보상해서 도둑이 적었다.³⁶⁾ 그들은 산천을 소중하게 여겼으며, 산천에도 각각 부분이 있어 서로 출입하거나 상관하지 못했다. 또한 같은 성씨끼리 혼인을 하지 않았다. 꺼리는 것이 많아서, 질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쉽게 옛집을 버리고 다시 새집을 지었다. 새벽의 별의 위치를 보아 그 해의 풍성함을 알았으며, 구슬이나 옥을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³⁷⁾

항상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올렸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부르고 춤을 추었다. 그것을 이름하여 무천(舞天)이라 했다. 또한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올렸다.³⁸⁾

4. 삼한의 기풍제(祇豐祭)와 추수감사제(秋收感謝祭)³⁹⁾

언제 어떻게 삼한이 성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반도 이남에 삼한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다. 『三國志』 권 30 「東夷傳」에 따르면, 대방의 남쪽에 있으며, 동쪽과 서쪽은 바다에 접해 있으며, 남쪽은 왜와 접해 있다는 것, 사방 4천리 정도였으며, 마한·진한·변한 셋이 있었다.⁴⁰⁾

36) “其邑落相侵犯，輒相罰責生口牛馬，名之爲責禍，殺人者償死，少寇盜”

37) “曉侯星宿，豫知年歲豐約，不以珠玉爲寶”

38) “常用十月節祭天，晝夜飲酒歌舞，名之爲舞天，又祭虎以爲神”

39) 그같은 명칭이 보이지는 않지만, 성격상 그렇게 불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40) “韓在帶方之南，東西以海爲限，南與倭接，方可四千里。有三種，一曰馬韓，二曰辰韓，三曰弁韓。”

삼한은 모두 78개에 달하는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가장 세력이 컸던 마한의 경우 54개국으로 되어 있었다. 큰 나라는 1만여 가(家)가 되었으며, 작은 나라는 수천 가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을 합하면 모두 10여만 호가 되었다. 진한과 변한의 경우 각각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큰 나라는 4~5천 가, 작은 나라는 6~7백 가가 되었다. 합치면 모두 4~5만호가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 중에 훗날 백제, 신라, 본가야로 발전하는 소국들(伯濟國, 斯盧國, 狗邪國)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삼한에서도 하늘에 대한 제사가 있었다. “(마한에서는) 5월에 씨뿌리기를 마치고 항상 귀신에게 제를 올렸다. 마을사람들이 무리 지어 주야를 쉬지 않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술과 음식을 먹었다. 그 춤은 수십 명이 함께 일어나서 뒤따르고 몸을 낮게 높게 굴리며, 손발을 서로 맞추었다. 절주는 마치 중국의 탁무와 비슷하였다. 10월에 농사를 마쳤을 때도 이와 같이 하였다.”⁴¹⁾ 그러니까 씨뿌리고 나서, 그리고 수확하고 나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그 귀신의 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늘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며, 곡식과 토지의 신 역시 상징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그들은 귀신을 믿어, 천신을 주로 제사지내는 한 사람을 세웠다. 그를 ‘천군’(天君)이라 했다. 또한 별읍(別邑)을 세워서 ‘소도(蘇塗)’라 했다. 소도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서, 귀신을 섬겼다.⁴²⁾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더라도, 잡아가지 못했다.⁴³⁾ 독자적인 ‘제사장(천군)’의 존재는 (‘제정일치’에서 벗어난) ‘제정분리’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정치공동체 내에서 ‘제사장’의 위상과 성격이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도 있겠다.⁴⁴⁾

41) “常以五月下種乾，祭鬼神，群聚歌舞飲酒，晝夜無休，其舞數十人，俱起相隨踏地低昂，手足相應，節奏有以鐸舞十月農功畢，亦復如之”

42) 소도 신앙의 형성과 사회적 성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두진 1999, 74-95 참조.

43) “信鬼神，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名之天君。又諸國各有別邑，名之爲蘇塗。立大木，縣鈴鼓，事鬼神。諸亡逃至其中，皆不還之。”

44) “어떻든 직업적인 祭司長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원시적인 巫覡信仰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자기의 힘으로 神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呪術師로서의 임무 보다도 神에게 기원하는 祭司長으로서의 임무가 강하여졌다. 다시 말하면 원초적인 呪術에서 祭祀儀禮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임무는 祖上과 天神地祇에 대한 제사와 같은 특별한

IV. 민회(民會)⁴⁵⁾: 국중대회(國中大會)와 합의제(合議制)

‘제천의식’에서 알 수 있었듯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대규모 행사였던 셈이다. 소수의 지배층 만의 행사는 아니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이 모였을 것이다. ‘국중대회’(國中大會)로 표현된 부분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늘에 제사를 지낸 다음 연일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는, 일년 중에 살림살이가 가장 넉넉하다는 점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마음이 넉넉해지다 보니, 죄수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했다.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제사이자 동시에 축제였던 셈이다.

지배-피지배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시대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역시 아득한 옛날로부터 이어져 온 공동체 의식이 더 강했다고 해야 하리라. 사회의 물질 토대 역시 공동작업을 필요로 하는 농업에 다름아니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원초적인 모임(집합)’을 상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민회(民會)’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국중대회’ 역시 그런 민회에 속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원을 생각해보면 ‘민회’는 ‘제천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듯 하다.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의 신성한 계시를 받아들이는 이미지를 생각해도 좋겠다. 이미 단군신화에서 그런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환웅은 아버지 환인이 준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가지고, 그리고 무리 3천명을 거느리고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정치적 권력자 자신이 말을 필요는 없었다. 그리하여 祭政은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이기백 외 1982, 113)

45) ‘민회’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아테네 도시국가의 자유민들로 구성된 그것, 즉 ekklesia(스파르타의 apella)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도시국가의 그 개념이 동아시아에서 번역되면서 ‘민회’라는 용어가 붙여진 것이다. 따라서 고대 한국의 정치사상사에서 제대로 복원해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태백산 정상 신단수(神檀樹) 아래로 내려왔으며, 그곳을 신시(神市)라 했다.⁴⁶⁾ 그 장면은, 후대에 국가의 구성원 무리 3천명을 거느리고 신단수 아래에 모여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모습으로 재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그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의 모임, 즉 ‘민회’를 상정해볼 수 있다. ‘국중대회’는 그런 모습의 현실태의 하나라 해도 되겠다. 그러나 국중대회 형식의 민회를 언제, 어디서나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국가적인 규모로 치러지는 제천의식 내지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연맹왕국’의 경우, 아직 강력한 왕권이 등장하기 이전 단계, 다시 말해 고대 국가의 전체 왕권이 구축되기 이전에 해당된다. 게다가 국가의 성격상 부족 연맹 내지 연맹왕국이라는 정치적 결합체였던 만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맹체의 대표자(부족장)들이 모여서[부족회의] 논의하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거기서 내려진 결정은 대표자 몇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구성원들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아울러 대표자 역시, 이념적으로는 구성원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처럼 연맹체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형식, 다시 말해 ‘합의제’ 역시 넓은 의미의 민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국중대회로 상징되는 ‘직접적인 형태의 민회’에 대비되는 ‘간접적인 형태의 민회’라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직접적인 형태의 민회라 해도, 중대한 사안의 논의와 결정은 대표자들(합의제)에 의해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자.

1. 신라 박혁거세 신화

신라의 건국 신화이자 동시에 시조 박혁거세에 얽힌 신화는, 민회 내지 합의체의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미 혁거세 탄생 이전에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곰이 변해서 비로소 여자가 되는 단군 신화와는 역시 성격이 크게 다른 것이다.

46) 『三國遺事』 「紀異」 篇 古朝鮮條.

시조의 성은 박씨(朴氏)이며, 이름은 혁거세(赫居世)이다. 전한(前漢) 효선제(孝宣帝) 오봉(五鳳) 원년 갑자 4월 병진 [정월 15일 이라고도 한다.]에 왕위에 올랐다. 왕호는 거서간(居西干)이다. 이 때 나이는 열 세 살이었으며 나라 이름은 서라벌(徐那伐)이었다.

이보다 앞서 조선(朝鮮)의 유민들이 산골에 분산되어 살면서 여섯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첫째는 알천(闕川)의 양산촌(楊山村), 둘째는 돌산(突山)의 고허촌(高墟村), 셋째는 취산(鷲山)의 진지촌(珍支村)[혹은 간진촌(干珍村)이라 한다], 넷째는 무산(茂山)의 대수촌(大樹村), 다섯째는 금산(金山)의 가리촌(加利村), 여섯째는 명활산(明活山)의 고야촌(高耶村)이라 하였다. 이것이 진한(辰韓)의 6부가 되었다.

고허촌장 소벌공(蘇伐公)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蘿井) 옆의 숲 사이에 말이 꿩어 앉아 울고 있었다. 그가 즉시 가서 보니 말은 갑자기 보이지 않고 다만 큰 말이 있었다. 이것을 쪼개자 그 속에서 어린아이가 나왔다. 그는 이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아이의 나이 10여 세가 되자 지각이 들고 영리하며 행동이 조신하였다. 6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기이하게 여겨 높이 받들다가, 이 때에 이르러 임금으로 삼은 것이다.⁴⁷⁾

혁거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육촌 내지 진한의 6부가 존재했다는 사실, 그 점에 먼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삼한 지역에, 소국들이 무려 78개나 있었다는 기록 역시 시사해주는 바 크다. 6부는 그런 소국들 보다 더 작았을 것이다. 아무튼 여섯촌의 하나인 고허촌 촌장 소벌공(蘇伐公)이 알에서 태어난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그런데 그가 영특해서 마침내 '6부 사람들'이 높이 받들다가 임금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6부의 존재, 그들의 '연맹', 나아가 그들이 임금으로 삼았다는 것은, 단군신화처럼 위로부터의 왕의 탄생이라기 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왕의 추대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혁거세의 출생은 기이하며, 필시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런데 왕을 추대한 주체는 '6부 사람들(六部人)'로 되어 있다. 이념적으로는 역시 '6부 사람들'이라 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6부 '촌장들'의 모임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허촌 촌장 소벌공이 혁거세의 후견인이었다는 점 역시 시사적이다.

47) 『三國史記』 「新羅本紀」 始祖 赫居世條.

그와 관련해, 옛 부여의 풍속, 즉 “옛 부여의 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곡이 익지 않을 때, 그 때마다 왕에게 허물을 돌려서 혹은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혹은 ‘왕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다”는 것 역시 ‘민회’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겠다. 왕을 바꾼다거나 왕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주체는, 현실적으로는 소수의 유력한 지배층일 수 있겠지만 이념적으로는 역시 수많은 백성들일 수 밖에 없다. 그들이 왕을 세웠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2. 가야국 수로 신화

『三國史記』에는 가야 건국과 그 신화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다행히 『三國遺事』 권 제2에는 「가락국기」가 실려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뒤섞여 있어 자료로서의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해야 하리라. 하지만 구간, 구지가, 수로왕의 가야 건국(육가야)에 얽힌 설화는 나름대로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다. 민회와 합의체에 관련해서는 참고할 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금 길긴 하지만, 인용해보기로 하자.

천지가 개벽한 후로 이 지방에는 아직 나라 이름도 없고, 또한 왕과 신하의 칭호도 없었다. 이 때 아도간(我刀干)·여도간(汝刀干)·피도간(彼刀干)·오도간(五刀干)·유수간(留水干)·유천간(留天干)·신천간(神天干)·오천간(五天干)·신귀간(神鬼干)들의 9간이 있었다. 이들 수장(首長)은 백성을 통솔했는데, 대개 1백호(一百戶) 7만 5천명이었다. 그 때 사람들은 거의 스스로 산과 들에 모여 살면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었다.

바로 후한(後漢) 세조(世祖)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18년 임인(42) 3월 계육일(禊浴日) 그곳 북쪽 구지(龜旨)에서 무엇인가 수상한 소리로 부르는 기척이 있었으므로 2-3백명 되는 무리가 여기 모였더니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데 형체는 감추고 소리만 내어 말하기를 “거기 누가 있느냐?” 하였다. 아홉 간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니 또 말하기를 “내가 있는 곳은 어디냐?” 하여 “구지입니다”고 대답하였다. 또 말하기를 “하늘이 나를 명령한 까닭은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 이르기 위하여 여기 내려 온 것이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봉우리 꼭대기의 흙 한 줍씩을 쥐고 노래를 부르기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으라 만약 아니 내 놓으면 불에 구워 먹겠다’ 하면서 춤을 추면 이것이 대왕을 마중하여 즐겁게 뛰노는 것으로 될 것이다” 하였다.

아홉 명 간들이 그 말대로 모두 즐겨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얼마 후에 우

러러 보니 다만 보라빛 노끈이 하늘로 부터 드리워 땅에 닿아 있었고 노끈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로 싼 금합이 있었다. 그것을 열어 보니 둥글기가 해 같은 황금 알 여섯 개가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랍고도 기뻐서 함께 수없이 절을 하다가 조금 뒤에 다시 알을 싸 가지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탁자 위에 두고는 무리들이 각각 돌아갔다. 그 후 12일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무리들이 다시 함께 모여 합을 열었다니 알 여섯 개가 사내 아이로 변하였는데 용모가 모두 위대하였다. 곧 평상 위에 앉으니 무리들이 축하하는 절을 하고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였다.

그들은 나날이 장성하여 10여일이 지났다. 키가 9척이 되어 은나라 천을(天乙)과 같았으며, 얼굴이 용처럼 생겨 한나라 고조(高祖)와 같았다. 눈썹이 여덟 가지 색깔인 것은 당나라 요(堯)임금과 같았고 눈동자가 검은색으로 된 것은 우나라 순(舜)임금과 같았다.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오르니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首露)라 하고, 혹은 수릉(首陵)(이는 죽은 후의 시호이다)이라 하였다. 나라는 대가락(大駕洛)이라 하였으며 또 가야국(伽倻國)이라고도 불렀으니, 즉 여섯 가야의 하나이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각각 돌아가 다섯 가야의 우두머리로 되었다.⁴⁸⁾

수로를 포함한 여섯 명의, 황금알에서 태어난 신령스러운 옥동자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간(九干)'이 있었다. 혁거세가 탄생하기 전에 6부가 있었던 것처럼. 그 실체는 알 수 없지만, 간(干)의 수장(首長)이 백성을 통솔하고 있었다. 그 규모는 1백호(一百戶) 7만 5천명 정도였다.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을 때, 9간이 다 모였다는 사실 자체, 그들의 '연맹'적인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수로를 비롯한 여섯 명이 왕위에 오르는 구체적인 과정은 알 수 없다. 결과만 알려져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늘에서 형체는 없고 소리만 들려왔다는 것, 게다가 그 내용이 예사롭지 않다. “하늘이 나를 명령한 까닭은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 … 너희들은 모름지기 봉우리 꼭대기의 흙 한 줍씩을 쥐고 노래를 부르기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으라 만약 아니 내 놓으면 불에 구워 먹겠다’ 하면서 춤을 추면 이것이 대왕을 마중하여 즐겁게 뛰노는 것으로 될 것이다.” 장차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다.

48) 『三國遺事』 「紀異」篇 駕洛國記.

하늘은 왕이 될 자를 내려보내고, 사람들은 모여서 노래부르면서 그를 맞이한다는 형식은, 앞에서 본 제천의식과도 일맥상통한다. 하늘에 대한 숭배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같은 하늘의 명을, 9간이 받들어 모셨다. 평상 위에 앉으니 무리들이 축하하는 절을 하고 정성을 다하여 공경했다. 그 징표로서의 황금알 여섯 개, 거기서 태어난 옥동자들이 있다. 그들은 놀라운 성장과 위엄있는 외모를 과시한다.⁴⁹⁾

어쨌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홉 간이 모여서 수로를 비롯한 그들을 받들어, 여섯 가야의 왕으로 모셨다는 것이다. 그것 역시 아홉 간의 합의에 의한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겠다. 사람들 역시 그 결정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민회와 합의제가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도 되겠다.

한 가지 덧붙여둔다면, 정치사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그 초점은 아무래도 ‘아홉 간에서 여섯 가야’ 에로의 이행 혹은 발전에 있다. 하늘은 하필이면 ‘여섯’ 개의 황금 알을 내려보냈는가? 하나만 내려보냈다면, 혹은 둘, 셋만 내려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는, 어쩔 수 없이 6가야의 성립에 얽힌 신화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다시 말해 6가야가 성립된 다음에, 나름대로 그들의 연원과 정당성을 설명해주는 신화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3. 고구려의 귀족회의와 대대로(大對盧)

부족연맹체 내지 연맹왕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종래의 부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합의제, 그리고 합의제를 통한 ‘선거’와 ‘교체’라는 제도적인 패턴이 점차 갖추어졌을 것이다. 또한 체제통합이 진척되면서, 제천의식에서 볼 수 있던 ‘국중대회’ 형식 보다는 부족장들의 ‘합의제’ (회의제)가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을 법하다. 체제통합이 한층 더 굳어지게 되자 종래의 부족장들은 점차 중앙의 귀족을 형성해 가게 되었다. 강력한 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같은 그들은 회의체, 다시 말해 ‘귀족회의’를 통해서 국사를 처리해갔을 것이다.⁵⁰⁾

49) “키가 9척이 되어 은나라 천을(天乙)과 같았으며, 얼굴이 용처럼 생겨 한나라 고조(高祖)와 같았다. 눈썹이 여덟 가지 색깔인 것은 당나라 요(堯) 임금과 같았고 눈동자가 검은색이 된 것은 우리나라 순(舜) 임금과 같았다.” 이것은 역시 후대의 ‘유교적인 윤색’이라 해야 할 것이다.

50) 이 지점에 이르러 ‘민회’의 성격이 미묘하게 달라지게 된 듯하다. ‘국중대회’적인 형식

고구려의 경우, 본래 다섯 부족, 즉 연노부·절노부·순노부·관노부·계루부가 있었다. 처음에는 연노부에서 왕이 되었으나, 점점 그 세력이 약해져 마침내 계루부가 대신하게 되었다. 처음에 국주(國主)가 되었던 연노부는 다시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 적통을 이은 대인(大人)은 '고추가' (古雛加)로 불리웠다. 왕을 배출하는 부족의 교체 자체, 그같은 합의제 내지 회의제의 존재를 어렵뜻하게나마 전해주고 있다.⁵¹⁾

게다가 고구려에서는 1등계 대대로, 2등계 태대형(太大人), 3등계 울절(鬱折), 4등계 태대사자(太大使者), 5등계 조의두대형(衣頭大人)까지 모두 최고 귀족들이 차지했다. 그들은 귀족회의를 구성해 중요한 국사를 처리했다. 수상에 해당하는 대대로는 왕이 직접 임명하지 못하고, 5부에서 대표자를 선거해 3년에 한번씩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부족 연맹장 선거의 유풍이 남아 있던 것이라 할 수 있다(김철준 외 1986, 96). 그런 양상을, 다음과 같은 중국 측 사료가 전해주고 있다.

관등은 12등급이 있는데, 대대로라 하고 혹은 토졸(吐)이라 하며, 울절(鬱折)이라 하는데 ... 그 밖에 태대사자(太大使者)라 하며, 조의두대형(衣頭大人)이라 하는데. 이른바 조의(衣)는 선인(先人)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나라의 정치를 맡아 다스리고 3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직책을 잘 맡아보면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바꾸는 날에 복종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공격해서, 왕은 궁궐을 닫고 지키고 있다가 승리한 자에게 맡기게 된다.⁵²⁾

4. 백제의 재상 선출과 정사암(政事巖)

백제에서도 재상은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여타의 다른 관서의 장도 3년마다 교체되었다. 역시 과거의 족장 선거의 유풍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같은 재상의 선출은 신성시되던 일정한 장소에서 행해졌던 듯 하다. 나라에서 신성하게

과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진 것은 새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51) 이는 신라에서 왕의 성씨가 박, 석, 김씨로 바뀌는 것과 대비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2) 『新唐書』卷 220 「東夷列傳」高句麗條.

여겨지던 장소가 있다면, 아마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정사암에 얽힌 다 음의 이야기가 그 일단이나마 전해주고 있다.

“호암사(虎巖寺)에는 정사암이 있다. 국가에서 장차 재상을 뽑으려 할 때 당선 될 사람 3, 4명의 이름을 써서 함에 넣고 봉하여 바위 위에 놓아두고 얼마 후에 보고 이름 위에 인장 자국이 있는 자를 재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하였 다.”⁵³⁾

안타깝게도 자세한 내역은 알 수가 없다. 몇 사람의 이름을 써서 함에 넣어두었 다가 나중에 인장 자국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선출했다는 것.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인장을 찍었을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적당히 조작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의 주제와 관련시켜 본다면, 누가 그 직책에 적합한지 그야말로 ‘하늘의 뜻’을 묻는다는 원초적인 관념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5. 신라의 남당(南堂) · 화백(和百) · 사령지(四靈地)

혁거세 신화에서 알 수 있었듯이, 혁거세 이전에 이미 6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 후 왕의 성씨 역시 박, 석, 김씨로 바뀌어 가게 된다. 정치적 수장의 명칭 역시 거서간(居西干) · 차차웅(次次雄) · 니사금(尼師今) · 마립간(麻立干) · 왕(王)으로 변화간다. 명칭에 담기는 의미 역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그것은 신라의 정치적 발전과정을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다.⁵⁴⁾

신라의 경우, 다행히 부족연맹 혹은 연맹왕국의 흔적을 비교적 많이 남겨주고 있다. 지리적인 특성 역시 한 몫 했을 것이다. 게다가 골품제라는 신분구조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골품제, 왕비족과 갈문왕, 대등(大等)과 상대등(上大

53) 『三國遺事』 「紀異」 篇 南夫餘 · 前百濟 · 北夫餘條.

54) 『三國史記』 「新羅本紀」 南解王條 「史論」에서, 김부식은 이렇게 논평하고 있다. “신라 왕으로서 거서간과 차차웅이라 부른 이는 한 분이요, 니사금이라 부른 이는 열여섯 분 이며, 마립간이라 부른 이가 네 분이다. 신라 말기의 이름난 유학자 최치원은 제왕년대 력(帝王年代曆)을 지으면서 모두 ‘某王’ 이라고만 부르고 거서간 등으로 말하지 않았 다. 혹시 그 말이 야비해서 죽히 부를 것이 못된다고 생각했음인가. 그러나 신라의 사 실을 기록함에 있어 방언을 그대로 두는 것도 또한 옳겠다.”

等)의 존재 등은, 오래 전에 있었던 부족의 연맹과 통합 과정을 암시해준다. 그런 만큼, 왕권의 강화, 전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귀족들의 회의체, 내지는 귀족 대표로서의 왕과 귀족들, 관리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형태로 정치가 행해졌을 것이다.

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먼저 『三國史記』에서 볼 수 있는 남당(南堂)을 들 수 있다. “침해(沾解) 이사금 3년(249) 가을 7월 궁궐 남쪽에 남당(南堂)을 짓고 [남당은 혹은 도당(都堂)이라 한다], 양부(良夫)를 이찬으로 삼았다”⁵⁵⁾고 한 데 이어, “미추(味鄒) 이사금 7년(268) 봄과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여러 신하들을 남당에 모아 왕이 친히 정사와 형벌의 잘잘못을 물어듣고, 또 다섯 사람을 보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고충과 우환을 위로하게 하였다”⁵⁶⁾는 기사가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백제에도 남당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는 점이다.⁵⁷⁾

남당을 짓고, 거기에 모여 정사를 논의했다는 것으로 보아, 남당에는 장소 내지 기구로서의 성격이 느껴진다. 원시적인 집회소, 즉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장소 내지 그같은 집회와 회의체 자체를 의미했을 수도 있겠다.

회의를 진행해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역시 ‘화백’ 제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여러 신하들을 모아서 의논해서 정하게 했다”⁵⁸⁾는 것, 그리고 “나라의 큰 일은 반드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의논했는데, 그것을 화백이라 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고 부결되었다”⁵⁹⁾는 단편적인 정보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화백은 여러 사람들(왕, 귀족, 관리)이 논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기본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던져주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대 사안을 의논할 때에는 ‘네 곳의 신령스러운 땅’, 즉 사령지(四靈地)에서 했다고 한다. “신라에는 네 곳의 신령스러운 땅이 있어서 나라의 큰 일을 의논할 때에는 대신들이 반드시 그곳에 모여서 의논하면 그 일이 꼭 이루어졌다. 신령스런 네 땅은 첫째는 동쪽의 청송산(靑松山)이요, 둘째는 남쪽의 우지

55) 『三國史記』「新羅本紀」沾解王條.

56) 『三國史記』「新羅本紀」味鄒王條.

57) “고이왕 28년(261) 봄 정월 초하루에 왕이 큰 소매의 자색도포와 청색 비단 바지를 입고, 금제 꽃으로 장식한 검은 비단 관을 쓰고, 흰 가죽 띠와 검은 가죽신 차림으로 남당(南堂)에 앉아 정사를 처리하였다.” 『三國史記』「百濟本紀」古余王條.

58) “其有大事，則聚群臣，詳議而定之” 『隋書』「新羅傳」.

59) “事必與衆議，號和白，一人異則罷” 『唐書』「新羅傳」.

산(于知山)이요, 셋째는 서쪽의 피전(皮田)이고, 넷째는 북쪽의 금강산(金剛山)이다.”⁶⁰⁾ 사령지에서의 논의가 화백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과연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알 수가 없다. 그나마 진덕여왕(재위 647-653) 때 있었다는 다음의 일화가, ‘우지암’ (사령지의 하나?)에서 열렸던 (귀족들의) 회의의 존재를 설화적인 형태로나마 전해주고 있다.

“왕 [진덕왕]의 시대에 알천공(關川公)·임종공(林宗公)·술종공(述宗公)·무림공(武林公)·염장공(廉長公)·유신공(庾信公)이 있었는데, 이들은 남산 우지암(于知巖)에 모여 나라의 일을 의논하였다. 그 때 큰 호랑이가 나타나서 좌중에 뛰어들어 여러 공이 놀라 일어났으나, 알천공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히 담소하면서 호랑이의 꼬리를 붙잡아 땅에 메쳐 죽였다. 알천공의 완력이 이와 같았으므로 수석에 앉았으나 여러 공들은 모두 유신공의 위엄에 복종하였다.”⁶¹⁾

V. 맺음말: ‘고층’(古層)과 ‘집요저음’(執拗低音)

지금까지 고조선과 연맹왕국 그리고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단계, 다시 말해서 그들이 ‘중앙집권적 귀족국가’ 내지 ‘고대국가’로 도약하기 이전 단계 — 연맹왕국(부족연맹) — 에서 볼 수 있는 ‘제천의식’과 ‘민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다음, 고대 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덧붙여두고자 한다.

우선 제천의식에서, 그 제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하늘(天), 그것은 우주의 만물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애니미즘(Animism)의 일환, 아니 그 최고봉에 다름아니었다. 하늘은 「태양」보다 훨씬 더 진보한 사유체계에 속한다. 자신들의 지배와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하늘의 아들」 혹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리 낯설지 않다. 이미 단군신화에서 확인되는 그런 모티브는 그후의 건국설화에서 거의 예외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60) 『三國遺事』 「紀異」篇 眞德王條.

61) 『三國遺事』 「紀異」篇 眞德王條. 이 설화의 포커스는, 뛰어난 완력의 소유자 알천을 능가하는 김유신의 위엄을 강조하는데 주어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표 1. 연맹왕국 시대의 제천의식

나라	명칭	시기	내용
부여	영고(迎鼓)	은(殷) 정월(11월)	하늘에 제사
고구려	동맹(東盟)	10월	하늘에 제사, 지모신(隧神) 제사
예(동예)	무천(舞天)	10월	하늘에 제사
삼한(마한)	기풍제(祈豊祭)	5월	파종 후에 귀신 제사
	추수감사제(秋收感謝祭)	10월	추수 후에 귀신 제사

게다가 당시는 농업이 물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던 만큼, 풍년·흉년을 결정하는 기후와 날씨를 관장하는 하늘이 갖는 위상은 실로 컸다. 그런 만큼, 각 연맹왕국에서 고유한 제천의식을 가졌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 시기로 보자면 대개 추수가 끝난 이후였던 듯 하다. 삼한에서는 씨를 뿌린 후에도 제사를 지냈다. 그것은 제천의식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민회 역시 제천의식과 무관하지 않았던 듯 하다. ‘제천의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제사이자 동시에 축제였던 셈이므로, 그 나라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이 모였을 것이다. 그것은 ‘국중대회’(國中大會)로 표현되었다. 아득한 옛날로부터 물려받은 ‘공동체’ 의식이 아직은 더 강했으며, 그것을 통해 그같은 공동체 의식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원초적인 모임(집합)’을 상징할 수 있으며, 그것은 원초적인 형태의 ‘민회’라 할 수 있겠다.

그같은 원초적 형태의 민회는 단군신화에서 이미 그 싹이 보인다. 환웅이 무리 3천명을 이끌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며, 그곳을 신시(神市)라 했다. 후대에 그 장면은, 정치적 군장(제사장)이 국가의 구성원 무리 3천명을 거느리고 신단수 아래에 모여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모습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어났을 때, 그 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의 ‘민회’를 추정해볼 수 있겠다. 제천의식에 볼 수 있는 ‘국중대회’는 그것의 현실태라 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것으로서, 아무래도 일상화되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중대한 사안이 생기거나 하면, 연맹체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부족회의) 논의, 결정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하겠다. 이념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뜻을 대변하지만, 실제로는 대표자들에 의한 모임, 말하자면 간접적인 방식의 민회에서 행해졌을 것이다. ‘합의제’ 내지 ‘회의제’ 형식을 띠게 된 그것은, 넓은 의미의 민

회에 속한다고 해도 될 것이다.

신라 건국(혁거세) 신화나 가야국 건국(수로) 신화에서 이미 6부 촌장과 9간의 연맹을 엮을 수 있다. 그들에 의해서, 혁거세와 수로는 왕으로 추대되었다. 간접적인 형태의 민회, 즉 합의제 형식에 의한 것이다. 종래의 부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합의제, 그리고 합의제를 통한 '선거'(선출)와 '교체'라는 제도적인 패턴이 갖추어진 것이다. 아무래도 '국중대회' 형식 보다는 부족장들의 '합의제'(회의제)가 점차 더 큰 역할을 하게 된 듯 하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합의제를 구성했던 종래의 부족장들은 그 성격이 점점 중앙 '귀족'으로 바뀌어갔다. 강력한 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들은 그런 합의제, 다시 말해 '귀족회의'를 통해서 국사(國事)를 처리해왔을 것이다. 고구려의 귀족회의와 대대로 선출, 백제의 재상 선출과 정사암, 그리고 신라의 남당, 화백제도, 사령지 등이 그같은 합의제를 전해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고대 사회의 제천의식과 민회는, 유교나 불교, 도교 등의 외래 사상이 도입되기 이전의 토착적인 정치적 사유의 아주 오랜 '고층(古層)'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역사가 진전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고대국가)가 형성, 구축되면서, 그들 역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같은 전통과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위상과 지분'은 이미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고대 국가가 자리잡게 되면서, 제천의식 외에도 이른바 '건국시조'에 대한 숭배가 행해지기 시작했다. 하늘의 자손이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영웅으로 여겨지던 건국시조에 대한 숭배는 하늘 자체에 대한 제사나 신앙과 거의 모순되지 않았다. 또 그것은 '조상숭배'라는 계기에 들어맞는 것이기도 했다. 숭배의 대상과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어갔다고 해도 되겠다.⁶²⁾ 고구려와 백제가 동명왕을 시조로 삼고 그를 모시는 사당을 설치한 것, 신라에서 시조묘를 세운 것, 그리고 다시 시조의 탄생지에 「신궁」(神宮)을 세우고 제사지낸 것 등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⁶³⁾

62) 단군신화에서 본다면, 처음에는 하늘(환인)의 아들 환웅이 강조되다가 점차 나라를 세운 단군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후손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김석근 2002a, 31-32 참조.

63) 자세한 검토는 최광식 1994의 제2장 시조묘 제사 및 제3장 신라의 신궁제사 부분 참조.

그와 더불어 민회의 존재 양태 역시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관료제와 행정체계가 정비되어감에 따라서 ‘국중대회’ 같은 직접적인 형태의 민회는 상당 부분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아울러 이념적으로 민회의 정신이 살아 있던 부족장들의 합의제, 간접적인 형식의 민회 역시, 고대국가 체제가 형성, 구축되면서 점차 중앙 귀족들의 ‘귀족회의’로 변모해하게 되었다. 대대로의 선출, 정사암, 남당과 화백제도 등을 통해서 ‘합의제’ (회의제)라는 형식은 그나마 유지되었지만, 그 내역에서는 이미 ‘민’과는 멀어져 있었다. 더구나 그 후에 전개되는 ‘왕권의 강화’ 내지 ‘전제화된 왕권’은, 연맹왕국 시대의 유제(遺制)라 할 수 있는 귀족회의의 존재마저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⁶⁴⁾

그렇다고 제천의식과 민회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다. 하늘(天)과 민(民)에 대한 뿌리깊은 인식은, 그 후 심층적인 정치적 사유의 ‘고층’을 이름과 동시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집요저음’(basso ostinato) 내지 ‘집요한 저류’로 작용하게 된다.⁶⁵⁾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집요하게 이어지면서 중요한 국면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제천의식 자체는 불교가 수용된 후에는 팔관회(八關會)라는 행사 속에 담겨져 행해지게 된다.⁶⁶⁾ 외형만 불교식으로 바뀐 셈이다. 또한 하늘과 민의 중시는, 그 무렵 전래되었을 유교의 수용을 한층 손쉬운 것으로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⁶⁷⁾ 유교의 천, 민본사상, 나아가 역성혁명 이론은 사상 내재적으로

64) 이는 신라정치사에서 왕권의 지배를 받는 ‘집사부(執事部)’의 설치, 그리고 ‘상대등’ 지위의 상대적 격하 등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65) ‘바소(basso)’는 저음(base)를 말하며, ‘오스티나토(ostinato)’는 곡 전체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짧은 악구(樂句) — 선율이나 음의 라인 — 를 말한다. ‘바소 오스티나토(basso ostinato)’는 곡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며 때로는 그 화성으로 암시되기도 하면서, 또는 주제의 선율이나 조성, 템포가 변형되어 나가면서 진행되어 간다. 이같은 음악적인 용어와 개념을 정치학적인 그것으로 응용했다고 할 수 있는 ‘집요저음’에 대해서는 丸山眞男 1996a: 1996b, 그리고 ‘집요한 저류’에 대해서는 진덕규 2002, 7-11 참조.

66) 팔관회에서는 천령(天靈)·오악(五岳)·명산(名山)·대천(大川)·용신(龍神) 등의 제신(諸神)에 제사지냈다.

67) 유교 수용에 대해서는 김석근 2002b, 52-56 및 이기백 1986의 “유교 수용의 초기 형태” 참조.

강한 친화력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같은 오랜 저류에 힘입어 마침내 ‘사람이 곧 하늘’ (人乃天)이라는 혁명적인 주장도 나올 수 있었다고 하겠다.

아울러 ‘민회’의 기억 역시 희미할지라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간접적인 형태의 민회 즉 합의제는, 고대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귀족회의’로 그 성격이 달라지기는 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관료제라는 틀 안에서의 ‘합의제’ 전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예컨대 고려시대의 도당회의(都堂會議) 도병사마(都兵馬使:都評議使司), 그리고 조선시대의 비변사(備邊司), 의정부(議政府) 등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이는 것’ (國中大會), 다시 말해 직접적인 형식의 ‘민회’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왕조 교체기 내지 정치적 격동기에 다시금 등장해서 정국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되고는 했다. 나말여초나 여말선초에 일어났던 농민들의 집단적인 저항과 봉기, 그리고 조선 말기 동학운동에서 볼 수 있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규모 집회 등이 그런 예에 속한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한다면, 19세기 말에 개최되었던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식민지 치하에서 일어난 3·1운동(1919), 그리고 가깝게는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 역시 그런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史記』

『漢書』

『三國志』

『隋書』

『唐書』

『新唐書』

『三國史記』

『三國遺事』

강인구 외. 2002. 『譯註 三國遺事』 I-V. 서울: 이회문화사.

김두진. 1999.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서울: 일조각.

김석근 2002a. “단군신화와 정치적 사유: 한국정치사상의 시원(始原)을 찾아서.” 이재석 외. 『한국정치사상사』. 서울: 집문당.

- 김석근. 2002b. "삼국 및 남북국 시대의 정치사상: 토론을 위한 하나의 시론." 이재석 외, 『한국정치사상사』. 서울: 집문당.
- 김석근. 2003. "아마테라스와 진무(神武): 역사의 신화화, 신화의 정치화." 『일본연구논총』 제18호.
- 김철준·최병헌 편저. 1986. 『자료로 본 한국문화사』. 서울: 일지사.
-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국가형성과 지배체제의 변천을 중심으로』. 서울: 일조각.
-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4.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 서울대출판부.
- 이강래 역. 1998. 『삼국사기』 I, II. 서울: 한길사.
- 이기백. 1986. 『신라사상사』. 서울: 일조각.
- 이기백. 1991. 『한국사신론』. 서울: 일조각.
- 이기백·이기동. 1982. 『한국사강좌 1(고대편)』. 서울: 일조각.
- 이재석 외. 2002. 『한국정치사상사』. 서울: 집문당.
- 정연식. 1983. "상고대 조선의 정치이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동일. 1988. 『한국문화사』 1. 서울: 지식산업사.
- 조지훈. 1996. 『한국문화사서설』. 서울: 나남출판사.
- 주보돈. 2002. 『금석문과 신라사』. 서울: 지식산업사.
- 진덕규. 2002. 『한국정치의 역사적 기원』. 서울: 지식산업사.
- 최광식. 1994.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서울: 한길사.
- 홍기문. 1989. 『조선신화 연구: 조선사료고증』. 서울: 지양사.
- 마루야마 마사오 저·김석근 외 역. 1998. 『충성과 반역: 전환기 일본의 정신사적 위상』. 서울: 나남출판사.
- J.F. 비얼레인 저·배경화 역. 1999. 『살아있는 신화』. 서울: 세종서적.
- 水林彪(外)編. 1998. 『王權のコスモロジー』. 東京: 弘文堂.
- 末次之. 1995. 『琉球の王權と神話』. 東京: 第一書房.
- 平石直昭. 1996. 『天』. 東京: 三省堂.
- 丸山眞男. 1996a. "原型·古層·執拗低音 — 日本思想史方法論についての私の歩み." 『丸山眞男集』 第12卷. 東京: 岩波書店.
- 丸山眞男. 1996b. "政事(まつりごと)の構造: 政治意識の執拗低音." 『丸山眞男集』 第12卷. 東京: 岩波書店.

ABSTRACT

The Sacrificial Rites for Heaven and the Assembly of Peoples of the Ancient States: In Search of ‘the Oldest Stratum’ and ‘Basso Ostinato’ of the Korean Political Thoughts

Seog Gun Kim |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Sacrificial Rites for Heaven’ and ‘the Assembly of Peoples’ of the ancient states (including allied states). They constituted ‘the Oldest Stratum’ of Korean political thinking,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ccepting foreign thoughts or trends from China. The Heaven was a symbol of Animism, and the ruling class generally asserted that they had been the ‘Son of Heaven’. The agriculture was the main industry, so the Heaven had an importance in their spiritual world. The Allied Kingdoms had their peculiar ‘Sacrificial Rites for Heaven’ such as Yeonggo (迎鼓) of Puyo (夫餘), Tongmaeng (東盟) of Koguryo (高句麗), Mucheon (舞天) of Tongye (東濊), and the Ritual for good harvest and Thanksgiving of Samhan (三韓). Many people had been gathered at ‘the Sacrificial Rites for Heaven’, which was described as ‘the National Convention’ (國中大會). It was the primitive form of the Assembly of Peoples. But this was a special and rare case. The Council System of the representatives, the indirect type of the Assembly of Peoples, was more common and this is where important decisions were made. The tradition of the Council System can be seen through the council of nobles and election of Daedaero (大對盧) in Koguryo, the prime minister election and Jeongsaam (政事巖) of Paekche, and Namdang (南堂), Hwabaek (和白), and four sacred places (四靈地) of Silla. But, with the centralization of ancient states, their position and importance changed. They formed the Oldest Stratum of Korean political thinking, and played the role of ‘Basso Ostinato’ or a strong undercurrent. For example, the tradition of Heaven and People made the introduction of Confucianism easier. The indirect

type of the Assembly of Peoples had become a tradition of Council System, and National Convention style of it was a key factor which decided the direction of political change in changing dynasties.